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2014년 1월 취업자 수는 70만 5천 명 증가(전년동월대비)하여 2013년 2월 이후 고용 증가폭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3월 이후 최대의 고용성과
 - 취업자 증가는 2013년 2월 20만 1천 명을 고비로 이후 고용증가폭 확대 추세 지속
 - 고용률도 58.5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1%p 증가(15~64세 고용률은 64.3%로 전년동월대비 1.3%p 상승)
 - 실업자 수는 4만 4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0.1%p 상승한 것은,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(-1.9%) 등을 감안할 때,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반영
- ◎ 1월의 우수한 고용성과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동향상의 새로운 특징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호적인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측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
 - 서비스업, 중소기업 위주의 고용성장 지속
 - 설 특수와 날씨(낮은 한파 빈도)도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
- ◎ 부문별 분석을 통해 고용성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봄
- ◎ 50세 이상 연령층이 여전히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, 청년층 고용이 2013년 9월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

-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53만 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(50대 32만 명 증가, 60대 이상 21만 명 증가)
 - 청년층 고용은, 청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7만 4천 명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폭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※ 청년층 가운데 20대 후반(25~29세)의 고용은 2만 1천 명 감소하였는데, 이는 주로 이 연령층 인구 감소(6만 7천 명 감소)에 기인
- ◎ 여성 고용의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성 고용 대폭 확대
- 여성 취업자 증가가 남성의 경우를 능가하는 상황이 2013년 11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진 가운데 여성 고용증가가 여전히 지속(여성 고용 32만 4천 명 증가)
 - 여성의 고용증가 주도 현상은 산업별 고용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최근의 고용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
 - 여성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남성 고용이 최근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회복하여 1월의 우수한 고용성과에 기여(남성 고용 38만 1천 명 증가)
- ◎ 고용률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여 20대 후반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크게 축소
- 2013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이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감소 추세가 2013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개선 폭이 더욱 확대
 - 남성 고용률이 70.2%를 기록하여 1.1%p 상승하였으며, 여성 고용률도 47.4%로 1.1%p 상승
 -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, 1월 50대 고용률이 72.3%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무려 2.1%p 상승
 - 20대 후반 고용률도 68.8%를 기록하여 0.8%p 상승하고 있는데, 이는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이 68.4%로 1.5%p 상승한 데에 주로 기인하며, 69.1%로 변화가 없는 남성 고용률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

◎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상용직 고용이 66만 명 증가하여 고용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, 일용직 고용이 5만 명 증가하였으며, 자영업자도 소폭 증가
- 자영업자는 2013년 1월부터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, 1년 만에 8천 명 증가

◎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4만 5천 명 증가하여 고용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, 제조업에서 9만 명, 건설업에서 1만 8천 명 증가
- 그동안 서비스업 가운데 특히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으며 1월에도 12만 2천 명 증가하였으나, 도매 및 소매업 12만 6천 명 증가, 숙박 및 음식점업 11만 9천 명 증가에서 보듯이 서비스업 여러 부문에서 고용성장
 - ※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’ 위주의 고용증가는 여성 주도의 고용성장 및 돌봄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

◎ 중소기업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
- 대기업의 고용이 13만 1천 명 증가하였으나, 중소기업의 고용은 57만 4천 명 증가
- 취업자의 대부분(90% 이상)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3년 상반기 동안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나,
- 2013년 하반기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하였으며, 2014년 1월에도 지속

◎ 신규채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

- 임금근로자 신규채용이 5만 1천 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신규채용 증가
- 2013년 6월부터 대기업에서 신규채용이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나, 아직 그 규모는 미미한 가운데 중소기업이 신규채용을 주도(대기업 1만 7천 명, 중소기업 3만 4천 명)
- 건설업이 신규채용의 대부분을 차지

- ◎ 고용증가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, 공공부문 취업자 수 증가는 미미
 - 1월 공공부문 취업자 수 2만 6천 명 증가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3년 11월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저조한 가운데, 1~11월 평균 상승률도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며,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역시 전년동기 실적에 미달
 - 2013년 11월 명목임금 상승률은 3.6%로서 전년동월의 4.4%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
 - 2013년 1~11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(4.0%) 역시 전년동기 실적(5.5%)에 미치지 못하며, 실질임금 상승률(2.8%)도 전년동기 실적(3.2%)에 미달
 - 2013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3.5%로서 역시 전년동월의 인상률인 4.7%에 미달
- ◎ 2013년 11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으며, 1~11월 평균 근로시간 역시 전년동기보다 감소
 - 2013년 11월 근로시간(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전체 근로시간)은 175.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에 비해 6.9시간 감소(-3.8%)
 - 1~11월 평균 근로시간(172.5시간)은 전년동기의 실적(175.1시간)보다 2.6시간 감소

최근 해외 고용동향

- ◎ 유로존의 고용실적은 여전히 열악하며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,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고용실적은 대체로 우수
 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으며, 경제 전체 실업률은 한국이,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

- 최근 들어 일본의 청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,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양자의 격차가 확대
 - 미국의 1월 실업률은 6.6%로 하락하였으며, 고용률도 67.7%로 다소 상승하여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
 -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(2013년 4분기 실업률 12.0%),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
 - 고용률에서도 한·미·일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반면, 유로존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
 - 다만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OECD 평균이나 유로존 수준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
- ◎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는 여전히 우수한 반면,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
- 독일의 고용률은 2013년 3분기에 73.4%로서 높으며, 2013년 4분기 청년 실업률은 7.5%에 불과
 - 반면 스페인의 경제 전체 실업률은 3분기 26.1%, 청년 실업률은 55.1%, 그리고 경제 전체 고용률은 54.1%, 청년 고용률은 16.2%에 불과